



■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이학박사

□ Q열에 관한 조사결과

얼마전부터 일반지에서 시판하는 란이 Q열균(Coxiella burnetii)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생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양계 협회에서는 각현의 양계협회의 협력하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축산생물 과학 안전 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제1회째의 조사에서는 409수의 닭을 사용하여 양성율은 0 이었다. 또한 제2회째의 조사결과(중간결과)를 최근 공표하였다. 제2회째의 조사에서는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산란계 농장 가운데 33개 도부현 41개 양계장의 406수를 추출하여 Coxiella burnetii II 세균에 대한 IgG 항체 보유 상황을 간접 형광 항체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혈청의 간접 형광항체에 의한 항체가는 1수(1/406 : 0.25%)가 32배로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16배 미

만으로 항체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항체 양성계의 혈청, 항체 양성계가 생산한 계란 7개에 대하여 PCR 방법으로 Q 열균 유전자의 검출을 시도하여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상의 시험결과로 이번 조사대상으로한 33개 도부현의 41개 양계장에서 송부한 406개의 검사 혈청에서는 항체 양성율은 0.25%이었고, 항체 양성으로 판정된 닭이 산란한 계란 7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제 학술 문헌에서도 공표하고 있는것과 같이 모두 음성이었다.

(NK, 2003. 12)

□ 흉부 수종(Breast blister)

4주령이 지나면서 흉골 후방의 피하에 수종(물집주머니)이 형성된다.

물집이 생겨 주머니 상태로 확장되므로 흉부 낭포 또는 흉부 수포, 흉골 활액포염(sternal bursitis)이라고도 한다. 주로 도계장

에서 탈모후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불량품으로 처리된다.

원인으로는 흥부에 대한 압박과 마찰 등의 자극이 반복되면 활액포의 결합조직이 증식하고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 낭포가 크게되어 육안적으로 확인될 정도가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발증에 관여하며, 닭 고유의 인자로 닭의 품종에 따라 발증율이 차이가 있으며, 수탉은 암탉보다 발증율이 높고, 발육이 양호하고 체중이 무거운 닭에서 자주 발증한다. 또한 흥부의 우모의 양이 적으면 발증율이 높아진다.

사양 관리상의 원인으로는 계사구조, 깔짚 형태, 환기 등이 발증율에 영향을 준다.

케이지 사육의 육계는 평사보다도 발증율이 높고, 평사에 사용한 깔짚에 관해서는 깔짚의 습도가 높거나 부적합한 깔짚소재의 경우에 발증율이 높다.

그리고 암모니아가스 스트레스에 의해 발증율이 증가한다. 더욱이 마이코프라스마중에 감염되면 관절 활막염과 함께 흥부 수종이 형성되기도 한다.

대책으로는 흥부에 바닥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줄이는 것이 유효하고 케이지 사육에서는 바닥에 부드러운 깔판을 보완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발증율을 감소시킬수 있다.

평사에서는 깔짚량의 증가, 깔짚의 정기적인 교환과 뒤집어주고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이 발증율을 완화시키고, 양호한 위생관리에 의한 마이코프라스마와 기타 세균의 감염증을 예방하는것도 필요하다.

(JSPD. 2002. 12)

□ 플라스틱 난좌의 오염제거

난좌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독의 실시가 지시되고 있으나 소독하지 않고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되고 있다.

반복 사용되고 있는 난좌를 관찰하여 보면 육안적으로 오염정도가 낮은 난좌, 먼지등이 부착한 중정도의 난좌, 계란의 내용물이나 계분이 부착한 고도 오염의 난좌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들 난좌에 대하여 일반 세균수나 대장균수에 대하여 검사하여 보면, 육안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난좌는 검출 세균수가 적고, 오염도가 높은 난좌는 세균수가 많으며,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좌도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난좌 추적 조사에 의하면 오염도가 낮은 난좌는 사용할때마다 수세 소독하고 있으나, 오염도가 높은 난좌는 소독하지 않고 반복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후현 축산연구소에서는 오염도가 높은 난좌를 소독액, 식초액 그리고 가온 수도수에 침적하고 세균의 제거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결과 난좌 오염 세균 제거에는 소독액보다도 가온수도물 식초산이 바람직 하지만, 가온수도물은 온도를 높이면, 플라스틱난좌가 변형되어 실용성이 떨어진다.

주정 초산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성질은 없고 항균 작용도 있어 난좌의 청정화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NK. 2003. 10)